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방안 연구*

원요한** · 임은진***

A Study on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 ‘Critical Reading of Border’ Class*

YoHan Won** · Eunjin Lim***

요약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리 교육에서 세계화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경계’에 대한 유의미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리 수업을 통해 제한된 경계 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인식하여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춘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는 지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기반이 되는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관계론적 장소관이 지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학습자들이 기존 지리 교과에서 다루는 선형(線形)적 실체로 인식되는 ‘경계’에 대한 개념과 도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표상 체계를 확장하여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다층적 정체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 모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 학교 수업에 적용한 후,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수업 이전에 구분을 상징하는 장벽의 형태를 가진 경계가 수업 후에는 투과적이고 사회적으로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경계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주요어 :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관계론적 장소관, 비판적 세계시민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flect on whether there is a meaningful education on boundaries that are changing due to globalization in Korea’s geography education, to fulfill ethical responsibilities for ‘others’ by recognizing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rising from the concept of limited boundaries through geography classes,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geographical education that could foster a critical global citizenship with open awareness and attitude. To this end, we first sought out the theoretical basis implications of the selective permeability, social membership, and the relational conception of place for geographic education, allowed learners to critically reflect on the concepts and schematics of ‘boundaries’ perceived as linear entities covered by existing geography, and finally presented a “critic boundary reading” class module that can foster the multi-layer identity capabilities demanded by the globalization era. We also analyzed changes in learners’ cognitive and definitive aspects after applying them to actual school classes. As the result, we can see that the boundary, which has the form of a barrier symbolizing distinction before class, has turned into a boundary that is permeable and socially constructed by humans after class, and there has been a change in politic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for global “others” who are discriminated against and excluded due to globalization.

Key Words : The selective permeability, Social membership, The relational conception of place, Critical global citizenship

*본 연구는 원요한(2021)의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세종국제고등학교 교사(Teacher, Sejong Global High School, n_n9@naver.com)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jlim21@kongju.ac.kr)

I. 서론

세계화로 인해 오늘날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자 한 국가의 국민으로, 더 나아가 세계 시민이라는 중첩되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상품과 자본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빠르게 편입되고 있으며,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기존 '경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Popescu(2011)는 세계화로 인해 이주와 자본의 초국가적 흐름이 심화되면서 사회를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로 간주되던 국민국가의 권력 독점이 도전받고 있으며, 영토적 용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던 '경계'의 기능은 약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세계화의 양상은 국가의 경계 내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철기(2015)는 세계화의 흐름에서 시민성은 경계를 가로지르며, 특정 경계 또는 공간적 컨테이너 속에 한정되기보다는 이동한다고 보고, 경계화된 시민성은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스케일에서 중첩되어 다중적 시민성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초국적인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규덕·박배균(2019)은 세계시민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지리 교과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리 교과가 시민성 교육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김민성(2013)은 지리학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의 기반이 되는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과목이라고 하며, 다양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참여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는 지리 교과의 특성은 글로벌 시민성 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갑철(2016)은 기존의 학교 지리가 현실 세계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민성 함양이라는 소명에도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계화된 영역'의 개념에 대한 대안적인 지리적 상상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지리 교과에서는 '열린 경계'와 '닫힌 경계', 그리고 이러한 경계들이 충돌하는 역설을 다루기보다 한계(혹은 제한, limits)의 의미와 선형(線形)적 실체로 인식되는 '경계' 개념의 학습에만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한정된 '경계' 개념의 학습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닫힌 경계'에서 '열린 경계'로, '열린 경계'에서 '투과적 경계'로 변해가는 다차원적이고 맥락적인 경계 개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구분'과 '제한'이라는 기존 경계에 대한 도식에 대해 글로벌화에 따른 '열린 경계'와 '투과적 경계'라는 새로운 도식이 제기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기존 개념과 도식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경계'를 초월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지리 교육은 학습자들의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계'에 대한 유의미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지리 교육에서 세계화로 인해 변해가고 있는 '경계'에 대한 유의미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지리 수업을 통해 '경계' 개념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현실 세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을 함양하고, 제한된 경계 개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인식하여 '타자'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윤리적인 책임 및 태도를 갖춘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는 지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기반이 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과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관계론적 장소관이 지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학습자들이 기존 지리 교과에서 다루는 선형(線形)적 실체로 인식되는 '경계'에 대한 개념과 도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표상 체계를 확장하여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다중적 정체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 모듈을 설계하였고, 이를 실제 학교 수업에 적용한 후,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I.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계'에 대한 재개념화

급속한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일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배타적 권력이었던 주권, 정체성, 경계 등의 개념이 도전받게 되었고, 국가를 초월한 초국적 또는 무국적(nonstate)인 현상인 지구적 흐름은 교역을 조직하는 구조로서 국가 간 흐름(interstate flows)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Popescu, 2011). 이러한 세계화의 양상은 국가의 경계 내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정숙·조철기(2009)는 세계 시민성 교육은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피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기능을 함양하고, 사회정의, 글로벌 연대와 같은 가치와 태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고, 김민성(2013)은 기존 지배 세력의 시각으로 재생산된 것이 아닌 다양한, 특히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강조하였다. APCEIU(2015)는 글로벌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자로 ‘지식 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를 제시하고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과 ‘권력의 역학관계(power dynamic)’를 학습 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암묵적 가정을 파악하고 기존 담론 이면에 감추어진 가치를 드러내며 암묵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관계의 형성과 작동 과정을 분석하며 학습자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을 탐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갑철(2019)은 세계 ‘타자’에 대한 무한한 개방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타자’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최우선에 두는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리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선형(線形)적 실체로서의 한계와 제한의 의미만을 함의하고 있는 ‘경계’ 개념으로는 지리 교육에서의 글로벌 시민성 함양이라는 소명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토대가 되는 ‘경계’ 개념의 재개념화를 위하여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관계론적 장소관’이 지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1. 닫힌 경계에서 투과적 경계로의 전환과 선별적 투과성

경계(境界)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 등을 의미한다. Newman(2003)은 ‘경계’를 두 개의 영역적 실체를 구분하는 것, 다시 말해 영역적 실체의 한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경계를 인간집단, 그리고 영역 간의 분리와 접촉의 선으로 보았다. 그러나 Popescu(2011)는 이러한 경계에 대한 기존 인식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는 국경과 경계의 의미에 대해 제한적인 통찰만을 던져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경계는 본질적으로 공간의 분리와 접촉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경계를 분리와 접촉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정 정도의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계(限界)와 제한(制限)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계에 대한 개념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닫힌 경계’에서 ‘투과적 경계’로 변해가는 다차원적이고 맥락적인 경계 개념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이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경험적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Popescu(2011)는 더 나아가 사회 간의 자연스러운 구분이 곧 경계의 본질이라는 기존의 사고를 비판하고, 경계를 인간의 권력 행위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경계가 글로벌화 시대의 맞게 경계의 투과성을 재조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택된 계층의 사람이나 재화는 어떤 제약도 없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재화는 경계의 이동을 금지하는 ‘선별적 투과성’이라는 경계의 이중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선별적 투과성’은 선택된 계층의 사람이나 재화는 어떤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만들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재화 이동의 제약성은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국가의 경계는 다양한 수준의 투과성을 지닌 거름망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자본의 흐름에 대해서는 투과성을 높이고, 반대로 저숙련 노동력에 대해서는 투과성을 낮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경계가 우리(We)와 그들(Other)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타자의 존재가 단지 국경의 외부에 있는 이웃 국가가 아니라 국경 내부에 이주민과 소수 집단으로 확장되며 경계가 집단의 소속에 대한 내부/외부 차별화의 토대

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 영토의 한계를 설정하는 국경으로서의 선형적 경계뿐만 아니라 Popescu가 주장한 ‘선별적 투과성’으로 작용하는 경계가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리 교육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원주민과 이주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며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 내는 복잡한 경계화의 과정을 이분법적인 선형적 경계 개념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하였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인간의 권력 행위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경계의 ‘선별적 투과성’ 개념을 토대로 기존의 제한된 경계 개념과 도식을 극복하고, 글로벌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계 개념에 대한 맥락적이고 비판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리 교육이 근대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을 넘어 ‘타자’들을 향해 공감하며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성원권과 관계론적 장소관

‘성원권(membership)’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재(2013)는 성원권이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결사체에 자율성에 기초한 참여와 그 참여에 기초한 연대를 통해 획득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국제 이주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 국민국가 경계 내에서 형성된 시민권 개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못해 국민으로 호명되지 못하는 이들은 현실에서 삶의 터전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김현경(2015:31-32)은 인간과 사람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 존재로 정의하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는다라는 뜻으로 설명하였다. 즉,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하며 사회가 고정적인 지리적 경계를 갖고 있지 않은 ‘현상 공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간에서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받기 위해 ‘인정 투쟁’이 이루어지고, 사회의 경계는 이러한 ‘인정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그어진다고 하였다. 앞서,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리 수업의 기반이 되는 기존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에 대한 인식 확장을 위해 ‘선별적 투과성’ 개념을 탐구했다면, 보이는 경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해 형성되는 ‘차별’과 ‘배제’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학습을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모색하였다. 또한 ‘사회적 성원권’ 개념뿐만 아니라 황규덕·박배균(2019)이 제안한 ‘관계론적 장소관’ 개념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황규덕·박배균(2019)은 ‘본질주의적 장소관’을 장소를 뚜렷하게 울타리 쳐진 경계를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장소 내부에 뿌리를 내린 행위자들만 그 장소에 대한 진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기존 지리 교과서에서는 경계를 선형적 실체로써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계 개념은 세계를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내부와 외부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본질주의적 장소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들이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며 수동적으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소에 고착된 고립된 장소감에 주목하여 시민성의 개념을 특정 장소에 대한 영토화된 소속감에 기댄 닫힌 개념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

그들은 이러한 ‘본질주의적 장소관’의 대안적 장소 인식론인 ‘관계론적 장소관’을 제시하였으며, ‘관계론적 장소관’은 이러한 본질주의적 장소관을 극복하고,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경계와 시민성에 대한 개념과 도식의 전환을 위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주고 있다. 관계론적 장소관은 장소의 경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장소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행위자들의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우며 장소의 정체성이 그곳에 뿌리를 내린 내부자들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장소에 그어진 선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기반으로 교차하는 다양한 관계들의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지워지거나 새롭게 그려질 수 있는 ‘사회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사회적 성원권’과 ‘관계론적 장소관’은 이러한 기존의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으로 대표되는 보이는 경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경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타자’에 대한 정치

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 기반이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관계론적 장소관’ 개념을 토대로 학습자들에게 기존 지리 교과에서 제시한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경계 개념에 대한 인지적 확장을 토대로 현실 세계에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타자’들의 차별과 배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모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III.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의 설계와 적용

1. 국제계열 전문 교과 『지역 이해』에서의 ‘경계’에 대한 접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은 국제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속한 전문 교과 『지역 이해』 과목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지역이해’ 과목에서 경계 개념은 ‘경계선(boundary line)’과 ‘점이지대(transition zone)’ 2가지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지역의 한계(限界)를 구분하는 선형(線形)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과 면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지대 개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그림 1). 이렇듯 제한과 한계를 의미하는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 학습만이 지리 수업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제한된 도식 형성으로 이어져, 글로벌화에 따라 각 국가의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현실 세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 경계와 점이지대

경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되는데 국경과 같은 경계선(boundary line) 유형과 사헬지대와 같은 점이지대(transition zone) 유형이 있다. 서로 다른 두 지역을 구분할 때 그 구분의 기준이 한 가지일 경우 두 지역 사이의 경계는 명확한 선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점이지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 조직’이라는 한 가지 지표로 구분하는 국경선은 경계선 유형이고, ‘문화권’과 같은 다수의 지표에 의해 구분될 때는 점이지대 유형의 경계선으로 나타난다.

그림 1. 고등학교 『지역 이해』 교과서에 제시된 ‘경계’ 개념 출처 : 정문성 등(2017).

즉, ‘지역이해’ 교과서에 명시된 경계 개념은 세계를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본질주의적 장소관(황규덕·박배균, 2019)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들이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며 수동적으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소에 고착된 고립된 장소감에 주목하여 시민성의 개념을 특정 장소에 대한 영토화된 소속감에 기댄 닫힌 개념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

김대훈(2018)은 지역이해 과목의 구성이 동태적인 지역이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개념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재구성되며, 현실의 지역 자체도 다규모적이며 역동적으로 변화해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동적인 지역이해를 위해서는 고정된 경계 개념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경계 개념이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서술한 대안적 장소 인식론인 ‘관계론적 장소관’은 역동적인 지역이해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 관계론적 장소관은 장소의 경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장소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행위자들의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우며, 장소에 그어진 선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기반으로 교차하는 다양한 관계들의 조합에 따라 얼마든지 지워지거나 새롭게 그려질 수 있는 ‘사회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지역이해’ 교과에서 학습자들이 역동적으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한계와 구분으로서의 선형적 경계 개념뿐만 아니라 투과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선별적 투과성’과 같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경계 개념 학습을 통해 기존에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과 도식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확장된 경계 개념과 도식은 학습자들이 기존 국민국가 경계 내 제한된 시민성에서 국민국가 경계를 초월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다층적 정체성과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2.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의 실제

본 연구에서는 국제계열 전문 교과 ‘지역이해’ 과목에서 제시된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선(boundary line)’

개념을 Popescu가 제시한 '선별적 투과성' 토대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경계에 대한 개념과 도식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성원권', '관계론적 장소관'을 기반으로 보이는 경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를 인식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춘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은 국제계열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세종 소재 00국제고등학교의 3학년 5개 반 96명 학생에게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차시에 걸쳐 적용하였다. 00국제고등학교는 공립학교이자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학생들은 평소 지리 수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은 학습자들의 경계 개념

에 대한 표상 체계의 변화와 연계되는 인지적 영역과 이러한 인지적 확장을 토대로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과 연계되는 정의적 영역의 다면적인 평가를 위해서 논술형 문항을 활용한 수업 연계형 과정 평가를 도입하였다. 교사는 '비판적 경계 읽기 1차·2차 논술'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현실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의 경계 개념에 대한 표상 체계 확장 및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하였다.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은 그림 2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의 시행으로 구글 드라이브와 'EBS 온라인 클래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수업 차시마다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였고, 학습자들은 부여된 과제



그림 2. 온라인 플랫폼 기반 '비판적 경계 읽기 지리 수업' 주요 수업 절차

를 해결하여 교사가 각 학생별로 부여한 ‘구글 드라이브’에 수행한 과제를 업로드하였다. 학습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자신이 제출한 과제 목록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습자가 업로드한 과제를 열람하여 개별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EBS 온라인 클래스와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신속하게 학습자와 교사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였다.

1) 1차시 ‘경계와 점이지대’ 수업

본격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습자들이 경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도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1차시 수업 이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사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사전 과제를 토대로 실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전 학습자가 생각하는 경계 개념에 대한 정의와 경계에 대한 도식(schema)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 과제 실시 이후, 『지역이해』 교과서의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을 중심으로 ‘경계와 점이지대’를 주제로 한 1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경계선(boundary line) 개념을 세계를 의미 있는 범주로 확실하게 분할하고 구분함으로써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합리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공간 상에서 구분과 격리의 의미를 지닌 전통적 경계의 개념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 학습은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의 기본적인 이론적 개념을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학습자들은 기본적인 경계 개념의 학습을 토대로 경계에 대한 개념과 도식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개념과 도식을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 개념 이해를 위한 선행 지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2차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 수업

1차시에 학습한 전통적 경계 개념 즉, 한계(限界)와 제한(制限)의 의미로 경계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선형(線形)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 학습을 토대로 2차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 수업을 전개하였다. 학습자에게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 공간의 분리와 접촉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토대로 경계 개념에 접근하며, 기존 경계의 의미에 대해 제한적인 통찰만을 제공하는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경계 개념을 분리와 접촉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투과성’을 가진 개념으로 이해하며 기존 경계에 대한 개념과 도식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는 ‘개방 경계 담론’과 ‘경계의 안보화 담론’에 관한 제시문을 제시하고, 한계(限界)와 제한(制限)이라는 기존 경계에 대한 도식에 대해 글로벌화에 따른 열린 경계라는 새로운 도식이 제기된 상황에서 학습자들을 기존 개념과 도식으로 현실을 해석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시켜 학습한 개념을 토대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이고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조철기(2013)는 국민국가에 기반한 시민성은 세계화 시대에서 충분한 논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성에 대한 접근 방법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차시에서는 국민국가에 기반한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 개념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기존 경계에 대한 개념과 도식을 확장하도록 유도하였고,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새로운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 3차시 ‘선별적 투과성’ 수업

학습자들은 2차시까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2차시 수업 이후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글쓰기 과제 제시문은 Popescu(2011)의 ‘개방 경계 담론’과 ‘경계의 안보화 담론’을 재구성하였고, 학습자가 제시문을 읽는 과정에서 근대부터 구성되어 왔던 영토성이 해체되고, 경계 없는 자유로운 이동성을 강조하는 현상과 국경의 장벽이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상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학습자들은 글쓰기 과제를 통해서 ‘개방 경계 담론’과 ‘경계의 안보화 담론’에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경계’의 역할에 관해 서술하고, 이 두 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글로벌화 시대 바람직한 이상적인 경계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지난 차시에서 학습한 글로벌화 시대에서 재인식되고 있는 경계의 새로운 역할 개념을 활용하여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글쓰기 과제의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개방 경계 담론’과 ‘경계의 안보화 담론’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고, 이 두 담론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21세기 경계의 역설’ 개념을 맥락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21세기 경계의 역설’이란 글로벌화에 따른 흐름의 지리와 그 흐름을 조절하는 국경의 역할 간 괴리가 확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21세기 경계의 역설’은 3차시에 학습할 ‘선별적 투과성’ 개념 학습에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였다. 본 차시에서는 ‘21세기 경계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출현한 ‘선별적 투과성’ 개념을 지난 시간에 학습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 개념을 토대로 설명하고, 글쓰기 과제를 토대로 학습자가 단순 개념의 암기가 아닌 맥락적으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선택된 계층의 사람이나 재화는 어떤 제약도 없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재화는 경계의 이동을 금지하는 ‘선별적 투과성’ 개념을 학습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계에 대한 표상 체계를 확장해나갔으며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경계의 기능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4) 4차시 ‘비판적 경계 읽기 1차 논술’ 평가

4차시 수업에서는 앞 차시에서 학습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 개념과 ‘개방 경계 담론’, ‘경계의 안보화 담론’, ‘선별적 투과성’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경계 읽기 1차 논술’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평가를 통해 글로벌화 시대에 경계의 역할에 대한 학습자의 표상 체계의 확장과 글로벌 정체성에 대한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다면적인 평가와 학습자의 고차적인 사고의 평가를 위해 논술형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습자는 ‘비판적 경계 읽기 1차 논술’ 답안을 작성하고 사전에 배부한 ‘구글 드라이브’ 학습자 개인 폴더에 업로드하였고, 교사는 학습자가 등록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과제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을 실행하였다.

‘비판적 경계 읽기 1차 논술’은 ‘선별적 투과성은 글로벌화의 역설을 해결할 해결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 아닌가?’란 주제를 토대로 제시문을 제시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시문은 신자유주의 글로벌 시민성 담론이 다루는 글로벌 타자를 향한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영속화시키는 과정을 보여 주고, 선별적 투과성 개념으로 변화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원주민과 이주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차별과 배제 현상

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도록 구성하였으며,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과 ‘권력의 역학관계(power dynamic)’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비판적 경계 읽기 1차 논술’은 학습자가 이러한 암묵적 가정을 파악하고 기존 담론 이면에 감추어진 가치를 드러내서 암묵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도록 설계하였다. 학습자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선별적 투과성’이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한 개념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 과정은 글로벌화 시대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의 기반이 되는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지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리적 안목을 함양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시민성 담론을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였다.

5) 5차시 ‘사회적 성원권’ 수업의 실제

‘선별적 투과성’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특정 계층의 사람이나 재화는 어떤 제약도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재화 이동의 제약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배제 현상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우리(We)와 그들(Other)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학습자는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와 경계 만들기에서 권력이 작용하는 과정을 학습하며 근대 국가의 ‘선형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포섭하고 동시에 배제하는 전략이 현재는 ‘선별적 투과성’을 지닌 경계로 인한 포섭과 배제로 인해 우리(We)와 타자(Other)를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학습하였다. 교사는 이번 차시 교수·학습 활동의 주요 주제인 ‘사회적 성원권’ 개념을 이전에 학습한 ‘선별적 투과성’ 개념과 연계하여 학습자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배제를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교사는 남아공의 백인들이 흑인 홈랜드를 설치한 뒤 ‘반투스탄’이라고 부르며 독립시켜 외국으로 분류하고, 흑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도 그들에게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홈랜드 정책을 외국인이라는 범주 설정 기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건적인 사회적

성원권 부여 과정을 살펴봄에 ‘사회적 성원권’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학습자는 ‘사회적 성원권’ 개념 학습을 통해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들의 사례를 살펴봄에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기존 국민국가에 기반한 시민권 개념을 비판적으로 통찰하면서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자’들을 향해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6차시 ‘비판적 경계 읽기 2차 논술’ 평가의 실제

6차시 수업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경계’ 개념과 ‘개방 경계 담론’, ‘경계의 안보화 담론’,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개념을 모두 활용하여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만들어 내는 포섭과 배제’를 주제로 ‘비판적 경계 읽기 2차 논술’ 평가를 실시하였다. ‘비판적 경계 읽기 2차 논술’은 1차 논술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문을 2개 제시하고, 3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교사는 제시문을 토대로 차별과 배제를 유발하는 ‘경계’는 국경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빈부 차이, 계급, 인종 등을 바탕으로 한 비가시적인 경계로 인해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학습자는 ‘사회적 성원권’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문에 소개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의 원인을 추론하여 서술하고, 보이는 경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보이는 경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 또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타자화의 핵심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안을 구상하였다.

7) 정리 및 평가

교사는 모든 6차시의 수업을 마치고 실제 교수·학습

이 이루어진 이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경계’ 개념에 대한 정의와 ‘경계에 대한 도식(schema)’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차시 수업 이전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글로벌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과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깨닫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들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이 함양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1차·2차 논술형 평가의 학습자 답변을 분석하여 글로벌 ‘타자’들을 향해 공감하고 실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V. ‘비판적 경계 읽기’ 지리 수업에 대한 결과 분석

1. 학습자 작성 논술 답안과 교사 피드백

학습자들은 비판적 경계 읽기 1차·2차 논술을 토대로 근대국가 시민권 개념으로 인해 파생된 ‘타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시도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계로 인해 형성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성찰을 통해 ‘타자’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를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타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내면화할 수 있었다. 다음은 ‘비판적 경계 읽기 1차 논술’의 주제인 ‘선별적 투과성은 글로벌화의 역설을 해결할 해결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가?’란 질문에 실제 ‘학습자 A’가 작성한 논술 답안지 중 일부이다.

글로벌화의 역설은 세계화 시대에 경계(국경)를 개방하는 것과, 안보를 유지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다. 경계의 선별적 투과성이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또다른 국제사회의 트렌드라는 점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1세기 경계의 역설을 해

결할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 선별적 투과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투과가 되는 존재와 되지 않는 존재, 즉, 옳은 존재와 옳지 않은 존재를 결정하는 주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주체는 권력을 지닌 개인이 될 수도, 사회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들이 이를 판단할 자격이 되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경을 개방, 혹은 폐쇄를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치이지만,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다시 들어오기 위한 재외동포의 입국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조선족, 몽골인들에게는 한국어 능력시험을 봐야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며, 32개 업종만, 정규직이 아닌 방식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의를 통해 배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사는 재외동포들에게는 비자도 그냥 발급되며, 직종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같은 재외동포라도 이들의 출신국적에 따라 절차를 달리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 아마도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일수록 더 숙련된, 전문직의 사람들이고, 국내 입국 후 테러와 같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을 자행할 확률이 적다는, 그런 논리에서 만든 방침일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혹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학습자는 실제 '선별적 투과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접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한 개념을 토대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재외동포의 입국 절차를 사례로 주도로 제시문에서 언급한 '선별적 투과성'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 경계 개념에 대한 인식 및 도식의 확장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과 '권력의 역학관계(power dynamic)' 개념을 활용하여 '선별적 투과성'을 지닌 경계로 인한 포섭과 배제로 인해 우리(We)와 타자(Other)를 형성되고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보이는 경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깨

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작성하여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에 업로드한 과제물을 읽고, 피드백을 실시하여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한 개념에 대해 쌍방향으로 소통하였다. 교사는 학습자가 작성한 과제물을 읽고, 학습자의 교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과 개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다음은 실제 '학습자 A'에게 제시한 교사의 피드백 중 일부이다.

재외동포의 입국 절차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학습한 '선별적 투과성' 개념을 활용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00 학생의 생각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경계가 선진국/개도국, 고숙련 노동/저숙련 노동 등 이분법적인 차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안보에 위협한지 판단하는 국민국가 권력의 관점이 매우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한 부분 또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00 학생의 사례와 관련하여 지난 수업 시간에 언급한 '국가 · 경계 · 질서' 도서에서도 미국 9.11 테러 이후 전자 여권 도입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전자 여권이 실제로 테러 위험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전자 여권 도입으로 인한 차별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만드는 세계의 불평등한 권력(선진국/개도국)에 대해 논의한 매우 수준 높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계를 구성하는 권력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외국인, 난민,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적 성원권' 개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학습한 '선별적 투과성'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어떻게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을 토대로 탐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00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교사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 학습자에게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며 추가적인 인용 도서의 사례를 소개하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또한 다

음 차시에서 학습할 개념과 연관 지어 추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기존 시민권 개념을 비판적으로 통찰하면서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자’들을 향해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수업 활동에 대한 학습 효과 분석 및 평가

6차시로 구성된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 이후 교사는 학습자가 생각하는 경계 개념에 대한 정의와 경계에 대한 도식(schema)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1차시 수업 이전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 사전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하였다. 수업 이전에 실시한 오리엔테이션 과제와 수업 이후에 실시한 과제는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에 참여한 00국제고 3학년 96명 전원이 모두 제출하였으며, 수업 이후 학습자의 ‘경계’ 개념에 대한 정의, 경계 개념에 대한 도식의 변화,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와 ‘학습자 답변 분석’을 토대로 수합한 과제를 분석하였다.

그림 3은 수업 이전 오리엔테이션 과제에 대한 학습자

들의 답변을 분석하여 생성한 ‘워드 클라우드’이다.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서술한 단어는 ‘구분’, ‘기준’, ‘국경’이라는 단어이다. 또한 ‘나누는’, ‘구분하는’이라는 단어도 많은 사용 빈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주로 경계를 기존 선형(線形)적 한계로서의 경계 개념, 지역을 영속적이고 고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태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이전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생각한다.
- 내가 생각하는 경계란 실재하거나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선이나 벽으로, 이를 기점으로 벽 양쪽 지역의 특성, 속성이 서로 다르다.
- 경계란 벽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벽은 뚫고 싶어도 뚫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처럼 넘지 못하는 존재이다. 사물과 사물이든 사람과 사람이든 어떤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리되는 것이 경계라 생각한다.

이러한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경계 개념을 ‘구분’, ‘분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 ‘분리’로서의 경계 개념은 다음 그림 3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도식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도식은 A와 B를 ‘구분’하는 ‘장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표상 체계는 경계가 한계(혹은 제한, limits)의 의미로 이해되고, 선형(線形)적 실제로 학습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들이 그린 도식을 토대로 경계가 공간상에서 구분과 격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상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기존 인식은 현재 세계화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국경과 경계의 의미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즉, 본질적으로 공간의 분리와 접촉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계의 기능을 ‘구분’과 ‘격리’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표상



그림 3. 수업 이전 학습자들의 ‘경계’ 개념에 대한 정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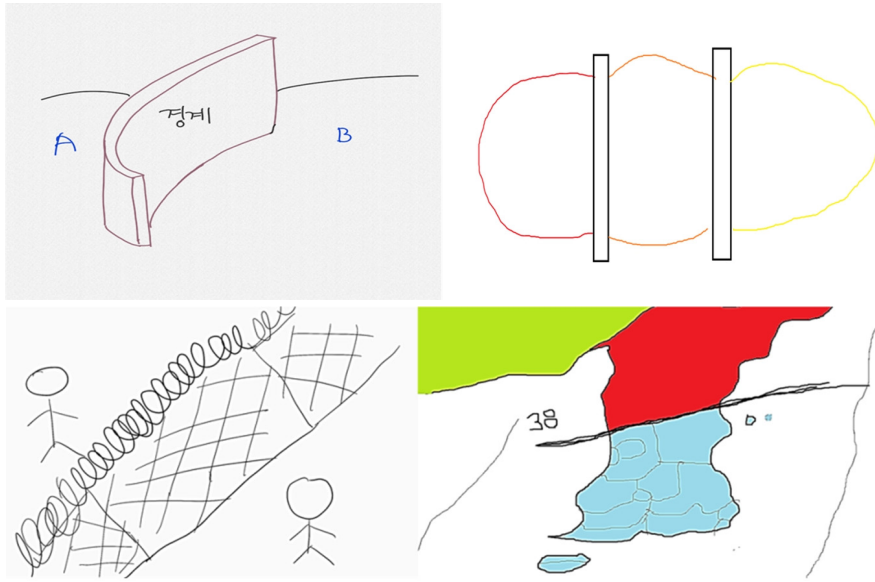


그림 4. 수업 이전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도식



그림 5. 수업 이후 학습자들의 경계 개념에 대한 정의

체계의 변화와 이를 토대로 한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을 6차시에 걸쳐 진행했으며, 교수·학습 이후 학생들의 경계에 대한 정의와 도식, 즉 표상 체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과제와 동일하게 수업 이후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5는 수업 이후 오리엔테이션 과제와 동일한 질문

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을 분석하여 생성한 ‘워드 클라우드’이다. 앞선 그림 1과는 다른 단어들이 표면적으로 많이 등장하였음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서술한 단어는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보이지 않는 경계’라는 단어이다. 또한 ‘차별’, ‘배제’, ‘투과성’이라는 단어도 많은 사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 이전 오리엔테이션 과제와 동일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된 ‘구분’, ‘기준’, ‘국경’ 단어의 활용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6차시로 구성된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 이후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경계에 대한 표상 체계의 변화를 토대로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이 학습자들의 기존 경계에 대한 표상체계 변화에 유의미한 비계(scaffolding)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수업을 통해 경계가 본질적으로 공간의 분리와 접촉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경의 기능을 분리와 접촉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경계를 인간의 권력 행위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고, 경계가 만들어내는 분리와 접촉 혹은 포함과 배제와 같이 모순되고 수많은 현상을 접하며, 기존 교과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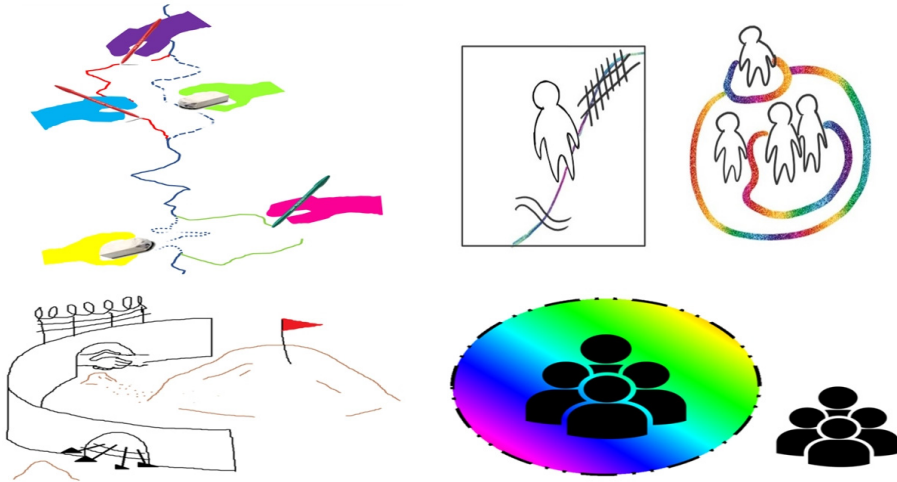


그림 6. 수업 이후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도식

제시된 선형적 경계 개념을 보충하여 학습자들이 글로벌화 현상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성원권’ 개념 학습을 토대로 경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 현상을 직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수업 이후 변화된 학생들의 경계에 대한 정의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업을 듣기 이전에는 경계는 그저 명시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구분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는 경계는 이전에 생각했던 경계의 의미보다 확장되었다. 경계란 무언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도 존재하며 이는 차별을 만드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계는 어떠한 것을 구분 지음과 대상 사이에 접해있어 투과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경계는 권력의 의미 또한 지닌다고 생각한다.
- 원래 경계는 구분과 분리의 의미만을 지닌다고 생각했으나, 수업을 듣고 나서는 경계가 공간의 분리와 접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경계는 단순히 장벽이나 한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영토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 만큼이나 그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 역시 수행한다.

학습자들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기존의 선형(線形)적 실체로서의 경계 개념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기존 경계에 대한 표상 체계에 대한 변화는 다음 그림 6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경계에 대한 도식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수업 이후, 이전에 그림 4에서처럼 구분을 상징하는 ‘장벽’의 형태를 가진 도식에서 그림 6과 같이 투과적이고 사회적으로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경계의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도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학습자들의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업을 통해 학습한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개념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존 경계에 대한 표상체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 경계 개념에 대한 표상체계의 확장 및 변화는 학습자들의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을 기반이 되고 있음을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 이후 ‘경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에 학습자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 우리는 사회가 정한 기준이나 개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 차별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더 증가하였고, ‘성소수자는 비정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 사람들을 ‘우리’라는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계를 끊임없이 구성하며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일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

- 경계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인 지금, 경계는 나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배척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이들을 차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차별을 위해 경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지역이해 수업 시간에 배운 사회적 성원권 개념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나와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경계를 들이대고 사회적으로 경계 안의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답변에서 ‘선별적 투과성’을 지닌 경계로 인한 포섭과 배제로 인해 우리(We)와 타자(Other)를 형성되고 있음을 깨닫고, ‘사회적 성원권’ 개념을 토대로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학습자들이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 이후 보이는 경계로 인한 차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로 인한 차별과 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깨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들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이 함양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글로벌화의 흐름은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다차원적이고 초국적인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UNESCO와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은 인류의 평화 공존이라는 보편적 순간을 강조함으로써 인권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존 서구 중심의 불평등한 글로벌 질서·환경을 강화하며 소외되는 ‘타자’의 자유 및 권익 신장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코스모폴리탄 담론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경계’를 초월한 ‘이동’이 이루어지는 글로벌화 시대에 ‘스케일’과 ‘경계’를 다루는 지리 교육이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이 현실 세계를 보는 지리적 안목을 길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지리 수업에서 한계(限界)

와 제한(制限)의 의미의 선형(線形)적 실체로 인식되는 ‘경계’ 개념 학습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단한 경계’에서 ‘열린 경계로’, ‘열린 경계’에서 ‘투과적 경계’로 변해가는 다차원적이고 맥락적인 경계 개념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계에 대한 표상 체계를 확장하여 지리적 안목을 갖추고,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비판적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에 바탕이 되는 인지적·정의적 역량의 성장을 위해 선별적 투과성, 사회적 성원권, 관계론적 장소관을 토대로 기존 ‘경계’에 대한 재개념화가 지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선택된 계층의 사람이나 재화는 어떤 제약도 없이 경계를 넘나들 수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재화는 경계의 이동을 금지하는 ‘선별적 투과성’은 학습자에게 글로벌화 시대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확장된 경계 개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성원권’은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경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계를 통해 형성되는 ‘차별’과 ‘배제’ 현상을 학습자들이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다. 또한, 장소의 경계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장소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행위자들의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우며 장소의 정체성이 그곳에 뿌리를 내린 내부자들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 내부와 외부에 위치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관계론적 장소관’은 경계 개념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인식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개방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 함양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비판적 경계 읽기’ 지리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세종 소재 00국제고등학교 『지역 이해』 수업에서 3학년 5개 반 96명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비판적 경계 읽기’ 수업은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성장 과정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논술형 수업 연계형 과정 평가’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총 6차시로 구성되었고, 수업 차시마다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EBS 온라인 클레

스’와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학습자와 교사의 쌍방향 소통과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업 이후 학습자의 ‘경계’ 개념에 대한 정의, 경계 개념에 대한 도식의 변화,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와 ‘학습자 답변 분석’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업 이전에 기준과 구분으로의 분리를 상징하는 ‘장벽’의 형태로 나타났던 경계에 대한 개념과 도식이, 수업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인간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투과적이고 선별적인 개념과 도식으로 변한 것을 ‘워드 클라우드’와 ‘학습자 도식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 답변 분석’을 통해 ‘선별적 투과성’을 지닌 경계로 인한 포섭과 배제로 인해 우리(We)와 타자(Other)를 형성되고 있음을 깨닫고, ‘사회적 성원권’ 개념을 토대로 글로벌화로 인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글로벌 ‘타자’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에 대해 인식하는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리는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다양성 존중과 국제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과목이자 글로벌화 시대 새로운 형태의 시민성의 기반이 되는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과목이다. 지리 교과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참여를 통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화 시대에 이러한 지리 교과 고유의 특성과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함양을 위한 수업 모듈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갑철 2016, “정의를 향한 글로벌 시민성 담론과 학교 지리” 한국지리환경학회지, 24(2), 17-31.
 김갑철 2019, “글로벌 시대 지리 학습의 의미와 방향 탐색” 한국지리환경학회지, 27(1), 69-85.
 김대훈 2018, “국제계열 교육과정에서 「지역이해」 과목의 위상과 정체성 혼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4), 591-603.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사회과교육, 52(2), 59-72.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요한 2021, “비판적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지리 수업 연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용재 2013, “사회갈등 대응을 위한 시민권의 재해석-획득하는 권리로서 생활공동체의 성원권,” 대한정치학회보, 21(2), 95-113.
 조철기 2013, “글로벌 시민성교육과 지리교육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162-180.
 조철기 2015,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과 지리교육의 방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618-630.
 정문성·전영은·성정원·이욱진·최유리 2017, 「고등학교 지역 이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정숙·조철기 2009, “지리를 통한 세계시민성 교육의 전략 및 효과 분석”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9-101.
 황규덕·박배균 2019, “지리교육에서 장소 이해에 대한 관계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5(1), 20-37.
 APCEIU 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Newman, D., 2003, Boundaries, in Agnew, J., Mitchell, K., and Toal, H., 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123-137.
 Popescu, G., 2011, *Bordering and ordering the twenty-first century: Understanding border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이용균·이현옥·이영민 역, 2018, 「국가·경계·질서: 21세기 경계의 비판적 이해」, 서울: 푸른길).

교신 : 임은진,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ejlim21@kongju.ac.kr)

Correspondence : Eunjin Lim, 32588, 56 Gongju Daehuk-Ro Gongju-Si Chungnam S.Korea (Email: ejlim21@kongju.ac.kr)

투고접수일: 2021년 3월 30일
 심사완료일: 2021년 4월 7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9일

